

# 지역가입자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사업장이 우선

## 국민연금 돋보기

### ③ 자격 변동처리

18세~60세라면 국민연금 가입 필수 자격 변동처리, 사업장서 자동신청 사업장가입자 미가입시 신고 가능

#. 개인 사업을 하는 이민혁(28)씨는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그러다 최근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다. 이씨는 회사에 소속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의 사례 처럼 만약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 취직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이종으로 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에 취직했다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

###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2015년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회사(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이 같은 자격 변동 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가입자는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지만 사업장가입자는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이 가입하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4.5%) 부담하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4.5%) 공제돼 납부된다.

기준소득월액은 486만원이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3.5%)에 연동해 오는 7월 1일부터 503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만 60세 미만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회사가 국민연금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조건을 만족하는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 등 가입내역이 이상할 때는 온라인으로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 센터는 국민연금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이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폐지 앞둔 공인인증서 대신 '패스'로 본인인증 과기정통부, 데이터 지원사업 공모 급증

21년전 도입된 공인인증서 폐기절차 핀번호, 생체인증으로 1분 내 인증 다중 보안시스템으로 보안성 확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가 급성장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패스는 지난 2018년 기준에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다. 앞으로 패스를 이용할 때는 요금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해지신청도 간편해져 이용자 피해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패스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때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이동통신 3사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에 플리케이션 화면.

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 개선은 공인인증서 폐지가 예정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설 전자 서명 서비스의 절차 미비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같아진다. 공인인증서는 그간 발급받기 까다롭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1년 전 도입된 오래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절차로 들어가고, 민간 업체들의 인증 기술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이동통신 3사가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과 출시한 인증 앱인 패스가 싹쓸이로 떠오르고 있다.

패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핀 번호나 생체인증으로 1분 내 인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또 다중의 보안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인증을 수행해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동통신 3사의 설명이다.

패스는 2월 기준, 2800만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동양생명보험, 미래에셋대우, KT 등이 패스 인증서를 도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자동차공학회 "자동차 보급 속도 조절 필요"

연간 17% 수준 판매 감소 예상

국내 자동차 산업이 내수·수출 판매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가 재정 노력 및 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 확대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급 속도 조절과 미래 산업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를 열고 코로나19 영향과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분석했다.

배충식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은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자동차 시장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와 부품 업체는 지난해부터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올해 이후 경제불황으로 감소폭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연간 17% 수준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며, 향후 경제 불황의 지속 여부에 따라 자동차 시장도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부회장은 "신동력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국가 재정 노력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위기가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급 속도 조절과 미래 산업에 대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연구책임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한 근거 있는 예측이 필요하다"며 "연간 17% 수준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며 향후 경제 불황의 지속 여부에 따라 자동차 시장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동력원 기술을 조화롭게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데이터 바우처 사업 3.7:1 경쟁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사업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년 대비 급증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1270건 모집에 총 4694건이 접수돼 3.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년(1.7:1) 대비 2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데이터 구매 분야는 600건 모집에 2642개 기업이 신청해 가장 높은 경쟁률(4.4:1)을 보였다. 올해 데이터 바우처는 소상공인이 54.1%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39.3%, 1인 창조기업과 예비창업

자가 6.5%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올해 20개 과제 모집에 총 92건이 접수돼 4.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3.2: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자율주행·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공급을 신청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된 AI 바우처 사업은 AI 솔루션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 도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14건 모집에 총 335건이 접수돼 2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5월 말에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하며, 데이터 바우처 및 AI 바우처 사업의 최종 심사 결과는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일도 함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0% '가족'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8만명 분석 배송 시간 단축·수입 증가 '장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은 택배 업계에서도 통한다. 운전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부부가 함께 택배상자를 나르면 시간은 줄어드는 대신 버는 돈이 더 늘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은 부부의날(5월21일)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 자사의 전국 1만 8000여명 택배 기사 가운데 부부가 13.6%인 2450명(1225쌍)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6%(70쌍) 늘어난 수치다.

올해로 6년째 택배기사로 일하는 최한민(43)씨는 거러져 출고 물량 등이 늘어나자 2년 전부터 아내 장민숙(38)씨와 함께 택배 일을 하고 있다.

최한민·장민숙씨와 같은 부부를 포함해 CJ대한통운에만 부모·자녀 관계,



경기 광주에서 CJ대한통운 택배 업무를 하는(왼쪽부터)장민숙·최한민 부부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형제·남매 등 가족 관계인 택배 기사까지 총 3498명(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가족 단위 택배기사가 증가하는 이유로 배송 상품이 소형화하고 자동화 설비 등 기술 도입으로 배송량, 작업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가족에게 추천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승호 기자 bada@